NH투자證, 각자대표 체제로… IB·WM 전문경영 시대 개막

신재욱·배광수 대표, 책임경영 강화
취임사 통해 "통합 성장 위한 운영"
AI 기반 업무혁신 등 경영방향 제시

신재욱 NH투자증권 각자대표

배광수 NH투자증권 각자대표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창사 최대 실적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 기반을 마련한 윤병운 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문경영인 시대를 열었다. 투자은행(IB)과 자산관리(WM)를 각각 책임지는 각자대표 체제를 통해 사업별 전문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AI 전환과 내부통제 고도화를 앞세워 초대형 투자은행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 성장 토대 위에 새 리더십 세웠다

NH투자증권은 30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신재욱·배광수 각자대표를 공식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IB·운용·홀세일과 WM·디지털 부문을 각각 총괄하는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을 완료했다.

이번 경영체제 개편은 IMA 사업 추진과 자본시장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사업 부문별 전문성과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 국면에 대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앞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임시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날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 절차를 마쳤다.

이번 인사는 윤병운 전 대표 체제에서 마련한 성장 기반 위에 새로운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는 '세대교체' 성격도 갖는다. 윤 전 대표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4206억원, 당기순이익 1조315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이끌며 회사의 첫 '순이익 1조원 시대'를 열었다. 최근에는 약 8조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통해 IMA 사업 진출 기반도 마련하며 미래 성장의 토대를 다졌다.

신재욱 대표는 IB·운용·홀세일 부문을, 배광수 대표는 WM·디지털 부문을 각각 총괄한다. 오랜 기간 각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두 대표는 사업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동시에, 전사 차원의 성과는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리더십을 이끌게 된다.

◆ "전문성은 나누고, 성과는 하나로"

신재욱·배광수 대표는 공동 취임사를 통해 각자대표 체제를 '분업'이 아닌 '통합 성장'을 위한 운영 방식으로 규정했다.

두 대표는 "각자대표 체제는 회사를 둘로 나누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과 책임은 명확히 하되 전사 성과는 하나로 만들어가는 운영체제"라며 "권한과 의사결정은 더욱 명확하고 빠르게 하되 최종 성과와 책임은 함께 지겠다"고 밝혔다.

두 대표는 업계 최고 수준의 자본수익성과 지속 가능한 이익 체력을 갖춘 회사를 만들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핵심 경영 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사업 간 시너지 강화와 자본 효율성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두 대표는 "우리가 추구하는 시너지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고객자산 확대가 기업금융의 우량 투자기회 선점과 운용성과 제고로 이어지고, 높아진 운용성과가 다시 고객자산 증대를 견인하는 선순환 통합성장 구조"라며 비즈니스 모델과 제도적 기반을 시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선순환 통합 성장 구조를 가속화하려면 자본이라는 연료가 끊임없이 공급돼야 한다"며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은 사업에는 자본을 과감히 배분하고 효율성이 낮은 영역은 면밀히 점검해 한정된 자본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AI 전환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두 대표는 "AI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가 아니라 임직원의 판단과 실행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라며 업무 전반에서 AI 활용도를 높여 임직원이 보다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내부통제 원칙을 기반으로 책임 있는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와 주주가치 제고, 사회적 책임 이행도 주요 경영 축으로 제시했다. 영업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 점검과 고객 관점의 검증 체계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고, 상장 금융투자회사로서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와 함께 NH농협금융그룹의 일원으로서 농업 발전과 지역사회 기여 등 사회적 책임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대표는 "새로운 체제의 성공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조직의 안정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변화는 분명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하나의 NH투자증권으로 성과를 만들고 고객에게 더 신뢰받고 주주에게 더 인정받으며 임직원이 더 큰 자부심을 느끼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상승장 초입… AI 반도체, 1만피 이끌 것"

인터뷰
김두언 하나증권 채널전략팀장

"실적 뒷받침, 버블로 보기 어려워
삼전보다 하이닉스 투자매력 높아"

김두언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 채널전략팀장.

"과열과 상승장의 초입은 동시에 온다. 나중에 돌아보면 지금이 상승장의 시작이었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코스피 1만 시대를 눈앞에 둔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사야 하는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어느 기업이 더 유망한지, AI 열풍이 버블은 아닌지까지 시장의 관심은 온통 AI와 반도체에 쏠려 있다.

메트로경제는 30일 서울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에서 김두언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 채널전략팀장을 만나 코스피 1만 시대와 AI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다음 주도주에 대한 전망을 들었다.

◆ "코스피 1만은 실적이 만드는 숫자"

김 팀장은 이번 상승장의 출발점을 지난해 9월로 꼽았다. 그는 "AI는 그전부터 있었지만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공급 부족)의 수혜가 한국 기업으로 본격적으로 넘어온 시점이 지난해 9월"이라며 "그때부터 지금의 상승장이 시작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메모리 반도체 역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경기민감 산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PC와 스마트폰 중심의 B2C 산업이었다면 지금은 AI 데이터센터와 기업 투자가 이끄는 B2B 산업으로 바뀌고 있다"며 "과거 평균 메모리 사이클이 5년 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상승 구간"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SK하이닉스 ADR 상장과 향후 삼성전자 ADR 가능성까지 더해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리레이팅이 진행된다면 코스피 1만은 저항선이 아니라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일각에서 제기되는 AI 버블론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버블은 돈을 못 버는데 주가만 오를 때 이야기"라며 "마이크론이 실적으로 이를 증명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AI 메모리 효과가 실적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가장 많은 돈을 푼 주체는 국가였다"며 "과거 안보자산이 석유와 철강이었다면 이제는 반도체와 AI가 새로운 안보 자산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전자·닉스'보다 '닉스·전자'…"그래도 둘 다 긍정"

김 팀장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가운데 현재는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높게 평가했다.

그는 "'전자, 닉스'가 아니라 '닉스, 전자'"라면서도 "삼성전자 역시 초격차를 만들기 위해 가장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어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양사의 전략도 다르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HBM4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확장에 나서는 반면 SK하이닉스는 D램과 낸드를 포함한 메모리 전반의 수익성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엔비디아 베라 루빈 일정 등을 감안하면 HBM4만 확대하기보다 수익성이 높은 D램과 낸드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전략일 수 있다"며 "현 시점에서는 모멘텀이 여전히 SK하이닉스 쪽에 있다"고 평가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ADR 상장도 중요한 변곡점으로 꼽았다.

김 팀장은 "시장은 ADR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살 수 있는 것과 쉽게 살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미국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 자체가 새로운 자금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 경쟁사보다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아온 이유 가운데 하나도 접근성"이라며 "ADR은 그 할인 요인을 하나씩 해소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투자 전략으로는 자신의 대표적인 원칙인 '밀리면 사자'를 다시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현금을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밀리면 사려면 결국 현금이 있어야 한다"며 "투자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자산의 약 15% 정도는 현금으로 남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도체 이후 유망 산업으로는 양자컴퓨팅, 우주, 로봇, 피지컬 AI를 꼽았지만 아직은 메모리 반도체를 대체할 정도의 주도주는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메모리 반도체를 70 정도로 두고 나머지 30 정도를 차세대 주도주 후보에 투자하는 전략이 현실적"이라고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S&P "AI 수출이 한국 경제 견인"

S&P글로벌레이팅스 기자간담회
GDP 성장률 전망치 2.9%로 상향

국제신용평가사 S&P글로벌레이팅스가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AI 관련 기술 수출 호조를 반영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9%로 상향했다. 다만 성장이 반도체 등 일부 산업에 집중된 만큼 공급 확대 이후 업황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S&P글로벌레이팅스는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AI 산업의 급성장과 잠재적 신용 위험'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루이 커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중동 갈등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의 정책 대응과 에너지 비축 능력으로 아시아 경제의 회복력이 예상보다 견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올해 실질 GDP 성장률을 거의 3% 수준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6개월 전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라며 "6개월 전만 해도 한국 경제를 그다지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최근 AI 관련 기술 수출이 예상보다 강한 증가세를 보이면서 성장률 전망을 높였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AI발 호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고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킴엥 탄 전무는 AI 수출 확대에도 원화 약세가 이어지는 배경으로 미국으로 향하는 투자자금을 지목했다.

탄 전무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자금이 미국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최근 3년여 동안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 투자 규모가 4000억달러 이상 증가했고 실제 신규 자금 유입도 최소 2000억~3000억달러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수출 증가로 유입되는 외화를 상당 부분 상쇄할 정도"라고 분석했다.

기업 부문을 발표한 김제열 이사는 올해 한국 기업들의 실적 개선이 AI 반도체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들어 한국 기업 섹터 전체의 이익은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지만 성장은 반도체라는 한 축에 집중돼 있다"며 "1분기 성장의 약 80%가 반도체에서 나온 성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슈퍼사이클이 적어도 2028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2028년부터는 유의미한 생산능력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급 능력과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향후 2~3년간 긍정적으로 보는 산업은 방산 정도"라고 덧붙였다.

김대현 상무는 국내 금융권이 주목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가계신용대출과 증시 변동성을 꼽았다.

김 상무는 "주식시장 전망을 말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 측면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특히 지난 5월부터 가계신용대출이 크게 확대됐고 이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됐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예상치 못한 대외 변수로 주식시장 조정이 일어날 경우 가계신용대출 부실이 금융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따라 금융기관의 기업금융과 주식 익스포저가 늘어날 경우 자본 건전성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정윤 기자